


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7.9.28.(목)	
책 임 자	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 수 미(02-2100-2801)	담 당 자	임 성 수 사무관 (02-2100-2802)		

제 목 : 문화일보 9.28일자 “말로만 금융개혁 … 무기력에 빠져버린 금융위” 제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- ☐ 문화일보는 9.28일자 “말로만 금융개혁 … 무기력에 빠져버린 금융위”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6월 15일 금융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폐지 또는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개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”,
 - “이와 같은 개혁 과제로 지적된 사안은 행정규칙 7개 규정, 20개 조항에 달했다. …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이 규정들의 개혁 이행 현황을 점검했더니 금융위는 모두 ‘진행 중’이거나 ‘미추진’이라는 답변을 했다”라고 보도

< 해명 내용 >

- ☐ 기사에서 개혁 과제로 지적된 행정규칙 7개 규정, 20개 조항 중
 - ①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등 2개 규정, 6개 조항은 상위법령 개정(17.10.10.시행)에 따른 후속 정비 작업으로 2017년 10월 19일 변경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며,

- ② 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 등 3개 규정, 10개 조항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.
- ③ 또한, 「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」 등 3개 규정, 3개 조항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'18년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,
- ④ 「상호금융업 감독규정」 1개 조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.
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 prfsc@korea.kr



넓게 들었습니다
바르게 알겠습니다